

WHY GRACE CHANGES EVERYTHING

척 스미스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

척 스미스 목사 지음

갈보리채플 극동선교회

THE WORD FOR TODAY KOREA

WHY GRACE CHANGES EVERYTHING

by Chuck Smith

© 2007 The Word For Today

Published by The Word For Today

Translated by permission of The Word For Today

TWFTK(The Word For Today Korea)는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기록이라고 믿고,  
성경 말씀을 온 세상에 가르치도록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www.FarEastMission.org](http://www.FarEastMission.org)

전화: 041)557-4607

Korean edition

© 2009 by The Word For Today Korea

본서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2008년)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아내 케이에게,  
그녀의 성실함과 사랑은  
일관성 있는 영감입니다.



## 차례

-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 7
1. 용서받음 ..... 17
  2. 그 문은 절대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 29
  3.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 41
  4. 은혜의 초상 ..... 57
  5. 한 번에 한 걸음씩 ..... 69
  6. 정원이지 공장이 아닙니다 ..... 85
  7. 믿음으로 받는 복 ..... 99
  8. 갈등은 시작되고 ..... 111
  9. 이젠 정말 자유입니다! ..... 125
  10. 그들이 제멋대로 살지 않을까요? ..... 137
  11. 위장 폭탄과 지뢰 ..... 151
  12. 전부가 아니면 소용 없습니다 ..... 165
  13. 왕가의 가족들 ..... 179
  14. 우리의 유일한 책임 ..... 193



##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쪽에서 할 일이라고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살핌과 긍휼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 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의 근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의 목록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나도 그런 억압적이고 소극적인 의로움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늘 내가 동네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담배도 안 피웠고, 춤추는 곳에도 가지 않았으며, 영화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주 죄스러운 일들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정신이 팔린 믿음이 약한 친구들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담배 궤를 주워 숨어서 몰래 피우는 목사님의 아들보다 내가 훨

씬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그러한 모든 아이들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백설공주 영화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나는 다시 구원받아야 했고, 다음 주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월요일 아침까지만 지켜져도 다행이었습니다.

나의 의는 나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매년 여름 우리 교회의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언제나 큰 장작불을 피워 놓고 둘러 앉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와 “끝까지 주님 따라 가겠네!” 등의 찬송을 불렀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정이 극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부분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싶은 일들을 종이에 적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은 종이를 접어서 술방울 속에 밀어 넣은 후 타는 장작불 속으로 던져 넣었지요. 내 술방울이 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에 의해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기를 원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야영 집회가 끝나면 우리는 선생님들을 따라 ‘앞으로 일 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장에는 절대 가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천한 말은 입에 담지 않으며, 물론 춤을 추러 가지도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말이 기록된 카드가 쌓인 테이블로 갑니다. 거기서 결단의 카드에 서명한 후 일 년 동안 늘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지요.



나는 결단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마르고 불법적인 관계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약에 의해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거의 기쁨을 찾지 못했지요. 나는 약속한 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서명했고, 내가 날짜를 기록했으며, 또 그것을 항상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보상을 하셔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단한 대로 살지 않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코 나보다 의롭지 못한 내 친구들이 항아리 속의 젤리 빈 숫자 맞추는 게임에서 일등하고 상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느라 죽을 고생을 하며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마땅히 그러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서 철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극장에 살짝 숨어 들어갔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 일 후에 나는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 약속한 결단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곤 했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해 놓고 무슨 낮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로 의로움을 얻어 보려는 힘겨운 노력은 아리조나 투산(Arizona Tucson)에서의 나의 초기 목회에서도 여전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무엇이 나의 사역에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여는 당시 유명한 부흥사들의 집회를 지켜보곤 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천막을 가득 메우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법석을 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나의 삶과 목회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투산의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병과 성경과 노트 한 권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에 그분의 복과 능력과 기름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영성 훈련을 치른 후에, 나는 금식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금식으로 인해 너무 쇠약해진 상태여서 주일까지 강단에 거의 서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복잡해서 조리있는 설교를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졸았고, 나는 곤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대했는데, 그 대신에 코고는 소리가 합창을 하듯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낙심했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보지 못하셨습니까? 보셨다면, 이 교회와 저에게 마땅히 복을 주셔야지요.’

##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때는 나의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강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에는 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안전과 안정성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나는 질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의무 조항과 죄책감보다 더 강한 사랑의 줄에 의해 그분께 이끌려 나오는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법과 규칙들에 의해 하나님께 매여 있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안달하며 속박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맺어진 관계와 의무나 죄책감으로 묶여 있는 관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이 외부적 압력의 목록에 매여 있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기랄 이렇게 할 일이 쌓였는데, 오늘 또 교회를 가야 하나? 그렇다고 안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테고, 목사님도 사나운 눈초리로 노려보실 텐데.” 이렇게 짜증내며 불평하는 것을 듣는 일도 하나님께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단조로운 존재 방식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다음과 같이 긴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모든 조건을 지키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라도 어기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너는 내 왕국 밖으로 쫓겨날 줄 알아!” 그리스도인은 무거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고린도후서 5:14).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나는 언제나 복 받기를 갈구하고 있었고, 결국 로마서를 깊이 공부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은 그 진리를 발견해 보려고 꼭 참고 계속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위대한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하고 자주 사용되는 말하면서도 그 뜻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으며, 나의 사역에서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결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롤러 코스터와 같은 관계가 아

나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편안하게 달리는 안전한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31)라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내 기분이 어떠했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을 그어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선 밖으로 발만 내디디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이 항상 율법주의를 동반하는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평안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내린 안전 수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해칠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도 놓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욱 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욕구와 중심이 됩니다. 율법으로 인해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필요가 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한 것은 나의 영적인 경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근거 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선한 행위나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혜야말로 우리의 실제 삶을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약돌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속성에 달려 있다는 엄청난 진리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천원 색깔의 폭발성을 가진 삶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메마르고 황량한 들판을 기름지고 싱그러운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 봉사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열심있는 봉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노력이 실패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눈물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의 전율로 바꾸어 줍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심오한 기쁨을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약한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나와 함께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는 자리에 있기를 초대합니다.

##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